

“새로운 「르네상스」의 創造”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具 珣 會

社會 各分野에서 소용돌이치기 始作한 새로운 變化에 대한 能動的인 受容態勢는 지난 時代를 살아온 우리들이 意識構造에 한줄기 淸涼한 바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變化 혹은 改革이 人間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原則下에서 오늘날의 새로운것에 대한 希求는 우리 意識속에 潛在해 있던 當爲性이 새로운 指標의 提示에 의해 現實化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胎動한다는 것은 깨치고 나와야한다는 아픔과 멈추지않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괴로움이 隨伴되는 것이다.

最近 우리社會는 「새로운 胎動」이라는 時代的 召命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經濟的인 側面에서 70年代에 擡頭되기 始作한 資源「내셔널리즘」은 世界的인 資源難을 불러일으켰고, 經濟成長의 加速化를 가로막아 不況과 異常景氣라는 昏迷속에서 各國의 經濟政策이 갈피를 못잡은채 80年代를 맞이했으며, 지금도 그 後尾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與件속에서 우리나라經濟는 中興을 主導해왔던 建築景氣의 沒落과 함께 沈滯의 늪에 빠져있으며 이제 起死回生の 轉期마련이 要求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經濟全般에 관한 問題인 同時에 建築界의 課題이며, 이를 主導해나가는 다른 사람안인 우리자신의 問題이기도 하다.

따져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昨今

의 現實이 어느分野 다른階層에 비해 불만스러웠음을 쉽게 알 수 있다. 建築分野의 專門技能性을 無視하고 政策이라는 「카테고리」속에서 行政에 의해 끌려다녀야했고, 따라서 오랜 經驗과 學問의깊이로만이 可能的 專門建築人으로서의 資格이 白眼視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굳이 建築文化의 繼承發展이라는 至高한 使命意識말고도, 또 建築人의 地位向上, 權益옹호등 利己의인 좁은 意味의 所見말고도 尙장 國家的인 浪費요 큰 損失이라는 觀點에서도 專門人이 專門分野政策樹立에 참여하고 主導해서 試行錯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뒤집어보면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적지않은 責任이 있다. 하나는 그렇게 되도록 傍觀한 잘못이요, 또 하나는 잘못인줄 알면서도 現實에 얽매어 끌고 맏지못한 잘못이 그것이다. 결국 우리의 地位에 우리스스로가 올라서지 못한 잘못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時點에서 하나, 서로 反目하지않았는가? 둘, 專門家로서의 투철한 召命意識이 缺如되지 않았는가? 셋, 스스로 바른 길을 걸었는가? 를 냉철하게 反省해야 할 줄 안다.

이러한 반성없이는 결코 새 秩序속에서 새로운 建築人으로 새길에 同參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認識해야 한다.

때문에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또, 우리의 地位를 높여야한다는 自求의인 面에서도 지금 社會各分野에 스

며들고 있는 淸涼한 바람에 힘입어 建築界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創造해야 할 줄 믿는다.

비단 一線에 있는 우리들만의 存立과 生存을 위한 「르네상스」가 아닌 우리의 뒤를 이을 後進들을 위해서도 꼭 必要한 것임을 안다.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根源的인 遺産이 결국 지금의 우리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영·제너레이션」(Young Generation)의 밝고맑은 힘이 우리로 인해 꺾이고 좌절하지않도록 튼튼히 基盤을 마련해야하는 責任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한다.

새로운 「비전」없이 卍態依然 하게 現實에 얽혀 이 時期를 보낸다면 우리에게 남는것은 虛像과도 같은 쓸모없는 名聲뿐이요, 名利만을 위해 휘저놓은 못난 우리의 모습뿐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召命感을 가지고 힘을 모아 노력할때 疏外되었던 우리의 地位가 바르게 定立될 것이며, 따라서 政策當局의 支援이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

소용돌이는 하나의 軸을 이루어 幅과 깊이를 더해 가듯이 우리의 손에 의해 우리가 만든 유일한 團體인 協會를 求心點으로 해서 追求해 나갈때 窮極的인 目的이 보다 빨리 達成될 줄 안다.

비록 깨치고 나와야한다는 아픔과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괴로움이 隨伴되는 胎動이라해도 결국 우리가 이루어놓아야 한다는 절실한 召命意識으로 우리의 「르네상스」를 위한 作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